

민주당 원팀이나 현역프리미엄이나



정당	민주당	미래당	정의당	혁명당	무소속
이름	조오섭(51)	범기철(69)	이승남(50)	박현두(58)	김경진(53)
학력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졸업	전남대 국사교육과 4년 제적	전남대 농화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현)광주3.15기념사업회 이사	(현)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위원장	(전)전라남도도정 자문위원	(현)제20대 국회의원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3)광주 북구갑

광주 북구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조직력과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무소속 간 대결이 치열하다. 지역 현안인 광주역 개발·각화시장 이전 등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조오섭 후보,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정의당 이승남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조 후보는 재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구 내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게 자평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근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에 대한 실무도 쌓았다. 그는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어받아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란 미명하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재결집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에 택시 종사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여론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 종사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조 후보는 "지하철, 버스업종은 광주시가 공사공단 전출금, 준공영제 등으로 적자를 보전받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도 상쇄시킬 수 있지만 택시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중교통의 한 축을 맡아 매일 방 역할을 병행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이

민주당 조오섭 지역내 지지기반 탄탄
무소속 김경진 의정활동·지역구 관리 병행
범기철·이승남·박현두도 출사표
광주역 개발·각화시장 이전 최대 이슈

되어 주고 있는 택시업종에 대한 지원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북구 발전의 '뇌관'인 광주역 행정문화경제복합 신도시 개발 ▲4차산업 교육 허브 도시 구축 ▲자연과학과 유후부지에 교육연구정보원 이전 및 4차산업 진로지원센터 신설 ▲일일산방직, 전남방직 이전부지 개발 및 도시재생 ▲동광주 IC폐도부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말바우시장 현대화와 현안 과제 해결 ▲광주호 호수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옛 광주교도소,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부지개발 ▲방공포대 이전 등이 있다.

김경진 후보는 민주당계 정당 탈당 이후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질타로 '국민 스타'로 등극했다.

그는 의정활동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구 관리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최근엔 매일 지역구를 돌며 청소년 등을 통해 유권자를 만나면서 보복을 없애고 있다.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평가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숙죄하는 마음으로, 특정당에 소속되기보다는 '사람 김경진' 그 자체로 주민 여러분의 재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3수 끝에 국회의원이 되어 지난 임기동안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했다"며 "그동안 광주 북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섰고,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신명나게 일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교수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500여개 육성 ▲광주역 일대 개발·활성화 ▲무등산·광주호 일대 체류형 관광지 조성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일대 공공개발 ▲말바우시장 관광개발 및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는 호남의병연구회장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걸었다.

정의당 이승남 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의당을 광주시민의 소중한 정치적 대안으로 만들고자 한다.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바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광주 정치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력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초연금 월 50만원 인상 및 대상 확대 ▲2035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2050년 탄소 Zero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이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는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매달 150만원 평생 지급 등의 공약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유망 광산업 육성 성과 '눈에 띄네'

히든챔피언 사업 46곳 지원
2024년까지 혁신·성장형 발굴

광주시가 광산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광주광산업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산업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지닌 숨어있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한국광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4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에는 시제품제작지원, 물성 분석지원 시험 및 교정·인증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등으로 매출과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특히 한국광기술원의 우수한 인력·기술·장비를 활용해 신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

한 시제품 제작부터 시장진출에 필요한 공인된 시험·분석·인증·교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해 기준 히든챔피언기업 최종 4곳의 매출액은 692억원으로 2015년 310억원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도 2015년 475명에서 지난해 526명으로 10.7%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2년간 적기 지원을 받은 지오씨(주)는 'World Class 300'에, ㈜코셋, ㈜지오메디칼 2개 기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선도기업 육성정책인 '명품강소기업'에 선정됐다. 시는 또 오는 2024년까지 광융합 산업 분야의 '혁신형 기업'과 '성장형 기업'을 새롭게 발굴·육성하는 '광융합산업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야외취사·불법소각 과태료

전남도는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6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등산로 주변 야외취사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적인 산불방화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산불통계 결과 총 183건의 산불이 발생해 38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중 3월부터 4월 발생한 78건이 전체 산불의 43%를 차지했다.

올해도 17건이 발생해 이중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35%의 비중을 보였다. 전남도는 불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될 위험이 높아 '불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산불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해 감시인력 집중 배치, 불법소각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생명국장장은 "주말인 율해 청명·한식일에 산객 등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 흡연, 취사 등을 절대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기 추진 차도선 개발사업' 선정

268억 확보 친환경 선박 개발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비 268억원으로 '미래 친환경 선박'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1일 "기존 디젤엔진 대신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매연·미세먼지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중·소형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을 개발해 이와 관련된 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남도는 이동형 전력공급장치 기술개발을 비롯 목포 인근 도서를 운행 중인 차도선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발하고, 목포 대양산단에 급속충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국비 268억원과 함께 지방비 90억원, 민간자본 92억원 등 총 4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주관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등 4개 기관과 유일, KTE, 금영, 라온텍, 듀라소니 등 12개 민간기업이 공동 참여한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AIST 등도 위탁·융역으로 참여해 전기추진 차도선 건조와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산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판세 분석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간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호남 텃밭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꼽히는 곳이다.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의 김 후보의 아성을 꺾고 텃밭을 되찾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무엇보다도 광주·전남 18곳 선거구 중 민주당이 가장 확실하게 '원팀'을 이룬 곳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판단 탓에 당내 경선 과정에 후보간 고소·고발이 잦았다.

조오섭 젊은층·김경진 노인층 중심 세 넓혀...세대별 투표율 관심

북구갑은 그나마 조 후보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정준호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손을 잡고 '민주당 원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는 또 북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최근 동문이 결집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원팀이 성사되면서 북구지역 사·구의원들 조직도 자연스럽게 조 후보에게 풀리고 있다.

지역 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김경진 후보도 체계적인 유권자 관리를 통해 표발을 다지고 있다. 김 후보는 평소 핵심 조직을 집중 관리했고, 이들 핵심 조직원이 다수의 하부 조직원이나 유권자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갑 총선은 조 후

보의 '민주당 원팀'과 김 후보의 '맨 투 맨 조직 관리'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북구 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담양 출신 유권자들의 선택도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담양 출신 유권자들이 결집할 경우 동향인 조 후보에게 다소 유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층 별 지지가 나뉘고 있는 것도 주요 변수다. 김 후보는 평소에도 마을 청소에 앞장 서는 등 마을 행사에 참여하며 노인층을 중심으로 입지를 다졌고, 조 후보는 젊은층 중심으로 세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연령층 별 투표율도 주요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